

# 대한민국 보일러의 가장 앞자리에는 경동나비엔이 있습니다

콘덴싱 보일러부터 원격제어 보일러까지 -  
언제나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가 되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대한민국 보일러를 이끌어 갑니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설비업체 전용문의  
1588-1144 1899-1914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4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6.8% 차지 (2014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나비엔 콘덴싱 스마트] 가스보일러  
언제 어디서나 보일러의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개념 보일러



[나비엔 메이트] 온수메트  
국가대표 보일러의 기술력 그대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온수메트  
공식쇼핑몰 | www.navienhouse.com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 NAVIEN

Premium Living MAGAZINE

Vol.  
**139**  
2016 SPRING



# NAVIEN

Premium Living MAGAZINE

Vol.139  
SPRING 2016

## Contents



04 House Of Temptation | SDM Apartment

10 Hobby of Honors | 공기정화식물

12 Space Environment | 창문

16 Trend

20 Life & Style | 카페같은 우리집

24 Housing History | 온돌과 보일러

28 NAVIEN Story


32 Tips | 자연 친화 인테리어

34 News

38 Readership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www.facebook.com/NavienKorea](http://www.facebook.com/NavienKorea)

 [www.kdnavien.co.kr](http://www.kdnavien.co.kr)

프리미엄 리빙 매거진 **NAVIEN** 발행일 2016년 4월 14일 발행인 최재범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매거진 담당 홍보팀 이수용 기획·디자인 및 제작 감 커뮤니티 02-6713-0999 문의 02-3489-2496 팩스 02-3489-2222

# SDM Apartment

DESIGN STUDIO: Arquitectura en Movimiento Workshop  
LOCATION: Mumbai, India



SDM Apartment는 멕시코의 디자인 스튜디오 Arquitectura en Movimiento Workshop이 인도 서부의 항구도시 뭄바이(Mumbai)에 만든 주거 공간이다. SDM Apartment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공간', '영혼까지 배려한 쉼터'라 평가받는 공간 자체의 매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특히 독특한 계단으로 일약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사용하기 쉬운 편안함을 주면서도 동시에 우아함을 잃지 않기 위해 Arquitectura en Movimiento Workshop은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통한 접근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SDM Apartment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을 느낄 수 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전체 공간과 각각 방들의 경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컬러를 이용해 공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녹여낸 덕분이다.



단색으로 칠해진 중앙 거실의 벽면에는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을 떠올리게 하는 회화가 걸려 있다. 심플한 벽면과 작품의 조화는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며, 동시에 작품을 돋보이게 해주는 갤러리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부드러운 벽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돋보이는 작품은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 준다. 곳곳에 자리한 예술작품과 심플한 디자인은 언뜻 진중한 갤러리를 닮았다. 그러나 동시에 공간에선 생동감이 느껴진다. 특히 조명이 숨겨진 천장은 파도의 물결을 닮아 공간에 생기를 더한다.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는 부드러운 빛은 정서적인 편안함과 따뜻함을,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천장의 독특한 모양은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공간에 더한다.

무엇보다 공간의 중심은 계단이다. 실제로 공간의 중심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의미 또한 그렇다. 아파트 어디에서나 보이는 계단은 두 개의 층을 연결해 가족 구성원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곡선으로 만들어진 계단에서는 편하게 기대어 쉴 수도 있어 층과 층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진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의 유대를 막는 분절과 경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SDM Apartment의 진정한 의미는 미학적 가치만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SDM Apartment는 방과 방, 층과 층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가족 구성원의 유대를 이어주며 이를 통해 보다 본질적인 가정, 정서적이고 공동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Eduardo Micha & Fabio Correa of  
Arquitectura en Movimiento Workshop

## Designer's SDM Apartment

**A**rquitectura en Movimiento Workshop은 1996년 젊은 건축가들의 모임으로 시작됐다. 미국, 스페인, 멕시코 등 다양한 출신의 젊고 매력적인 건축가들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 그렇게 시작한 Arquitectura en Movimiento Workshop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팀원 개인의 개성이 결국 팀의 창조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믿고 있다. 그래서 Arquitectura en Movimiento Workshop의 디자인에는 인간을 위한 환경과 개성, 창조성에 대한 존중이 묻어난다. SDM Apartment 프로젝트의 책임 디자이너인 파비오 코레아(Fabio Correa)와 에두아르두 미차(Eduardo Micha)는 가족 간의 소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다양한 활동과 정서적 안정 등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평화롭게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다.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가족 간의 유대와 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많은 공을 들였고 덕분에 SDM Apartment의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 개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



1등 보일러를 영어로 하면  
미국에서도 **NAVIENT**입니다

[美 콘덴싱 가스보일러 1위]

북미 시장을 석권한 경동나비엔!  
국가대표 보일러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보일러를 이끌어갑니다

나비엔 프리미엄 보일러 NCB900



**PREMIUM QUALITY**

· 미국기계학회(ASME) 인증\* 제품  
\*보일러 및 온수기 등 압력용기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품질 안전 규격

**PREMIUM SYSTEM**

· 대형고급주택에 알맞은 난방시스템 최적화/대용량 설계  
· 온수품질에 민감한 미국에서 인정받은 온수 제어 기술

**PREMIUM SERVICE**

· 프리미엄 전용 고객센터 운영 (1661-1144)  
· 제품 5년, 열교환기 10년 무상보증 선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프리미엄 전용 라인 1661-1144

\*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4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6.6% 차지 (2014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 2013-2014년 북미 콘덴싱 가스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냉난방기기 전문 컨설팅회사 BRG Building Solutions 자료 기준)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기존 단열재의 두께를 **85%이상** 절감한  
경동원의 고성능 흡드실리카계 진공단열재

**HYPER-VAC**



2017년 패시브하우스 외벽 열관류율 0.15W/㎡K기준,  
비드법 1종 1호(EPS, 열전도율: 0.034W/mK)는  
226mm의 두께가 필요

**HYPER-VAC**(열전도율: 0.0004W/mK)은  
26mm의 두께만으로 충분!



## 실내에 자연을 더하다

### 공기정화식물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심했던 집 안 공기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내 공기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염된다. 집 안에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고 싶다면 공기정화효과가 있는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다. 공기정화식물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일산화탄소와 같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정화해 실내 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식물이다. 습도 유지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에도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로는 아레카야자, 관음죽, 인도고무나무, 대나무야자, 호접란, 스킨답서스, 꽃베고니아, 마지나타, 테이블야자 등이 있다.

### 초보 가드너를 위한 TIP

- ① 공간에 어울리는 화기를 먼저 선택하고, 그 화기에 잘 어울리는 식물을 선택하는 순서로 시작해보자.
- ② 화분의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마사토와 배양토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야 한다. 물을 줄 때는 화분 흙 겉 표면이 말라보일때 만 물을 주고,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는 게 좋다.
- ③ 집 안에 식물을 놓으면 먼지가 쌓이게 된다. 먼지가 쌓이면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젖은 천이나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 ④ 야외에서 자라온 식물들이니 집 안에서 식물을 가꿀 때엔 환기를 자주 시키자.



생활에 표정을 만드는 창문  
마음이 통하는 통로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산울림이 부르고 아이유가 다시 부른 노래 '너의 의미'에서 창문은 대화와 연결, 사랑과 관계의 의미로 등장한다. 노래 가사가 아닌 일상에서의 창문 또한 실로 그렇다. 창문은 소통과 관계의 상징이고 바람은 물론 빛과 의미, 심지어 마음이 통하는 통로이다. 뿐만 아니라 종종 삶과 생활을 투영하는 액자가 되기도 하며, 건물과 거리에 리듬을 만들어주거나 생활에 표정을 더하기도 한다. 건축 요소,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로서의 창문은 단순한 '구멍' 그 이상이다.

창문은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모든 건물에 창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집에는 창문이 있다.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조차 '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창문을 만들어 넣는다. 적어도 창문이 있는 건물이라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여겨도 될 것이다. 창문이 이렇게도 건축과 생활에 중요한 이유는 창문이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이다. 실내와 실외의 사이에서 소통과 경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소통과 경계의 창구이면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에서 불을 피울 때 생기는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지붕에 작은 구멍을 뚫은 것이 인공적인 창문의 시작이었다. 아직도 흔하게 쓰이는 오쿨러스(Oculus, 눈-동근 창)가 창문의 첫 형태였던 셈이다. 처음 창문을 만들자, 매캐한 연기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낮이면 따듯한 태양 빛이 들어왔다. 처음부터 창문은 실내와 실외의 바람과 빛이 소통하는 창구로 시작했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는 오르내리창(Double-hung Window, 내리달이창)이 많이 쓰였고 나머지 유럽과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달이창(Case Window)이 일반적이었다. 오르내리창은 단열에 유리하고 여달이창은 환기에 유리하다. 지역마다 많이 쓰이는 창이 다른 것은 창문의 형태가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발전한 덕분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창이라는 이름으로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다. 지역의 기후나 환경과 관계없이 냉난방 효율과 추락사고 방지의 목적이 가장 크다.



## SPACE environment

한국의 창문은 봉창, 바라지문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발달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미닫이창(Sliding Window)이 발전하기도 했다. 미닫이창은 여달이창과 오르내리창의 장점을 고루 갖췄다. 고온다습한 한국의 여름에도 적합하고 추운 겨울에도 적합하다. 창살만 있고 유리나 종이로 덮지 않아 지속적인 환기와 채광을 추구한 봉창과 여름에는 활짝 위로 제쳐서 열어 두었다가 겨울에는 내려서 벽처럼 쓰기도 한 바라지문은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이다.

창문은 각 방은 물론 건물 전체의 냉난방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동안은 조망과 채광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자 건물 외피의 대부분을 유리로 두르는 통유리벽(All Glass Curtain Wall)이 유행했다. 이런 방식은 조망과 채광에는 유리하지만, 실내 온도 유지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건물 외부에 유리 대신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재료가 사용되고 창문이 다시 작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알루미늄 창틀은 점차 시스템 창호로 바뀌고 있다. 모두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Don't just sit, sink

## 블록벤치 시스키



딱딱한 의자는 튼튼하지만 오래 앉기에는 편하지 않다. 반면 폭신한 의자는 편하지만 썩 튼튼하지는 않다. 튼튼하면서도 편안한 의자는 없을까? 시스키(Sitskie)의 블록벤치는 단단한 나무의 튼튼함과 폭신한 소파의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허받은 쿠션 블록 시스템 덕분인데 수많은 나무 블록을 이용해 쿠션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누가 사용하든 사용자의 신체에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450개의 나무 블록이 마치 메모리폼처럼 변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무의 튼튼함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의자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다. 천이나 가죽이 아닌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소와 관리도 쉽다는 건 아주 매력적인 덩이다.



Make Anything a Remote Controller

## 노키 스완솔루션

스마트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노키(Knocki)는 스마트홈을 더욱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진정 스마트한 제품이다. 무엇보다 사용법이 간단하다. 집 안에 있는 금속, 대리석, 나무 등 단단한 소재로 된 곳에 노키를 붙이고 노키 주변을 '똑똑' 두드리면 된다. 처음 설치할 때, 스마트폰에 알림을 보내거나 가전제품을 작동하는 등 노키로 실행할 기능을 설정하는 것 외에는 복잡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마저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 어렵지 않다. 보일러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 손님이 노키할 때 자동으로 스마트폰 알림을 보내도록 현관문에 설치할 수도 있다. 생김새와 기능은 단순해 보이지만 창의적으로 집안을 바꿀 수 있다.



Luxury Wearables

# 샤먼 샤먼 S.A.S

스마트 워치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 워치가 기존의 시계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기존의 시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스마트 워치가 등장했다. 샤먼(Shammane)은 마치 주얼리나 액세서리와도 같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스마트 워치다. 메시지, 일정, 알림, 피트니스 트래킹 등 기본적인 스마트 워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은 물론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췄다. 심플한 워치 페이스와 페브릭 스트랩의 조화로 스마트 기기라기보다는 멋진 패션 아이템에 가까워 여성들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스타일에 따라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으며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컬렉션으로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 똑똑한 그녀가 선택한 스마트홈 세상! 나비엔 IoT 홈오토메이션

경동원의 앞선 IoT 기술로 열어가는 스마트홈 세상!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안전성과 편리함을 더해 드립니다.



UHA-1020C 25.6cm(10.1형)

- 방문자 영상통화기능**  
외출시에도 내 집 방문객과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 보일러제어**  
켜고 끄고 온도조절까지 집 밖에서 보일러를 내 마음대로!
- 가스밸브제어**  
깜빡하고 켜 두고 나온 가스불도 걱정없이 집 밖에서 OFF!
- 홈기능**  
홈에 내장 카메라로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 조명제어**  
쓸데없이 켜져 있을지 모를 전등, 집 밖에서 OFF!
- 시큐리티기능**  
침입자, 비상상황 발생시 내 스마트폰에 경고알림!

세계가 인정하는 경동원의 뛰어난 기술력!

- 'K-ICT IoT Award 2015'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수상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의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상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굿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나비엔 IoT 홈오토메이션 기능 UP!

- 외출시 방문자와 스마트폰 영상통화 가능
-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난방/조명/가스밸브 제어
- 비상 발생시 스마트폰 알림 기능(액네 영상 확인)
- 사용자 중심의 GUI로 편리성 증대



**경동원 대리점 모집**  
경동원과 함께 성공을 만들어 갈 가족을 모십니다.

제품 구입 및 A/S 문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144**

NAVIENT IoT Home Automation  
**경동원**  
(주)경동원 네트워크 사업부

# 아늑한 카페에 온듯, 우리집 인테리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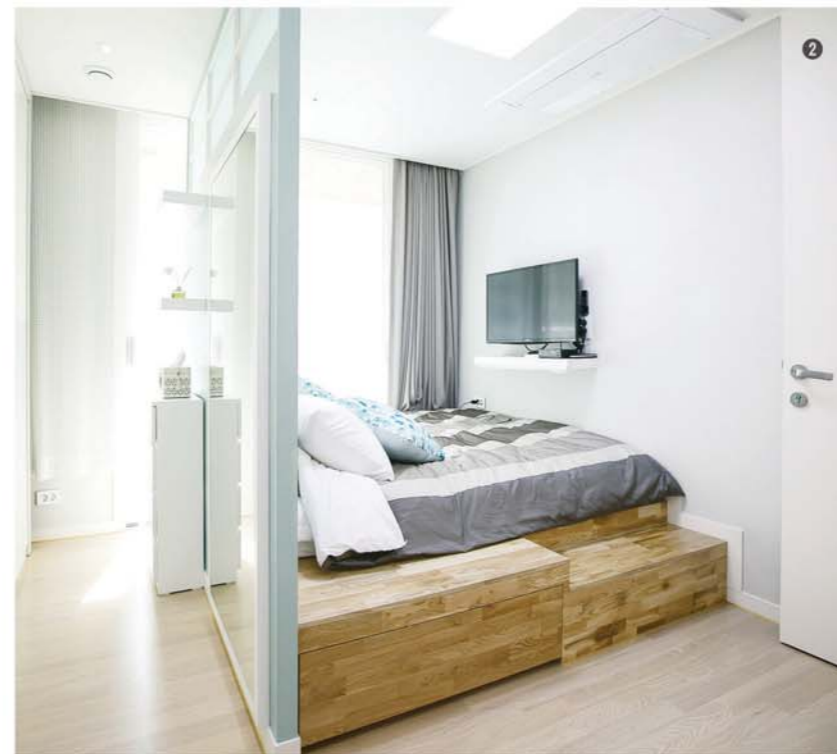
## TIP

아트 월 슬라이드 도어에 거울을 사용하여 거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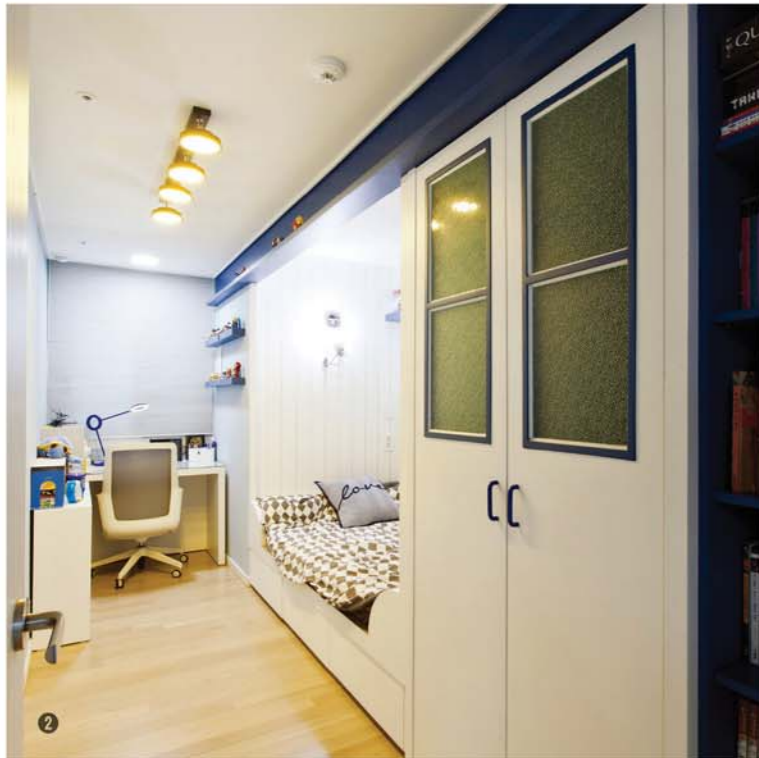
카페 분위기를 위해 놓은 거실의 벤치형 의자는 위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아트 월의 상하를 분리해 답답하지 않고 트여 있는 느낌을 주었다.



① 파우더룸 바닥에는 이니셜 타일을 사용해 언제든 D.I.Y 활용이 가능하다.  
딸의 방에는 침대, 옷장, 책장을 연결해 다락방 느낌을 주었고, 확장하지 않은 베란다를 파우더룸으로 활용하였다.



② 침대를 평상형으로 하면 몸체가 낮아 편리하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만들 수 있다.  
안방에 가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했으며, 가벽의 뒷면을 활용하여 디퓨저, 소품 정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 ① 가볍고 심플한 유리 조명을 사용하면 공간에 포인트가 된다.  
전체적으로 흰색 조명을 사용해 시원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었다.
- ② 선반을 설치해 아이가 직접 꾸밀 수 있게 하면, 스스로 꾸민 방에 대한 애착이 높아진다.  
아들 방은 큰 기동과 직사각형 형태로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기동과 지붕을 연결해 오두막 느낌의 안락한 공간을 완성했다.

- ③ 무리한 확장은 추위가 걱정이고, 샷시는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 풀딩 도어를 설치했다.  
베란다 천장에는 우드 소재를 써 아늑한 느낌이 들고, 거실과 주방, 베란드의 장판을 통일하여 연결감을 주었다.



## 따뜻한 보금자리를 채워온

온돌과 보일러의 역사



우리나라 온돌 난방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5000년경부터 400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만강 유역의 서포항 집터에서 최초의 온돌 사용 흔적을 볼 수 있다. 원시인이 불을 발견, 획득하고 불을 이용하여 구들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우리 고유의 온돌문화인 구들이 생성된 시기는 적어도 구석기시대 이전으로 추정된다. 우리 민족이 바닥난방에 익숙한 것도 바로 온돌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겨울을 나는 주요 수단으로 온돌을 사용했고, 추울 때 방바닥을 데우는 가정의 난방 방식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통 방식인 온돌과 서구로부터 유입된 보일러는 어떻게 융화되어 발전해 왔을까. 1950년대 이후, 급속한 현대화와 함께 온돌의 열원 역할을 하던 나무 떨감이 사라지고 이 자리를 연탄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의 온돌문화에 큰 위기가 되기도 했다. 구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탄 온돌이 개발되다 보니 가스누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후 국가적 사업으로 연탄온돌의 개량이 추진되었고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개발한 온수 순환식 바닥난방이 도입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온돌문화와 서구의 보일러가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온수 순환식 바닥난방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정용 보일러를 도입한 곳은 1961년에 건설된 마포 아파트였다. 취사, 난방, 목욕이 가능한 연탄 온수보일러를 시공했던 마포아파트는 처음에 연탄가스 유출 위험이 크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으나, 차츰 그 편리함과 안정성이 인정되어 일반 가정까지 연탄보일러가 확산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때의 가정용 연탄보일러는 연탄 연소부에서 발생한 열이 직접 방바닥 밑의 구들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져, 연탄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석유가 새로운 보일러 연료로 도입되면서 기름보일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름보일러는 연탄가스 사고의 완전한 예방과 연탄을 갈아주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이후 가정용 보일러의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뒤이어 액화천연가스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망을 타고 가스보일러가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가스보일러는 연소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잠열을 최대한 이용하는 콘덴싱보일러로 발전했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아시아에서는 국내 제조사인 경동나비엔이 최초로 개발한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최소 15% 이상 높고, 유해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콘덴싱보일러는 우리의 온돌문화와 결합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2005년, 독일의 칼스루에(Karlsruhe)대학과 DVGW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 세계 난방시스템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온돌에서 콘덴싱보일러가 열효율이 가장 높으며, 내구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에서 태어난 콘덴싱기술에 한국 온돌이 접목되면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고효율보일러로 진화한 것이다. 근래에는 온돌난방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부족 시대에 온돌과 접목된 콘덴싱보일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프리미엄 온수매트  
**NAVIEN MATE**



국가대표 보일러의 온도제어 기술이 그대로!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킨 경동나비엔의 정밀 온도제어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쾌적한 온도를 구현합니다.



100% 순면 로가닉 소재의 프리미엄 매트/커버  
친환경 프리미엄 매트 '크림하우스'와 함께 개발한 매트/커버는  
스타일이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비엔만의 안심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나비엔 행복나눔센터(1588-1144)를  
통해 AS 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콘덴싱보일러

### 일상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

아침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로 오늘도 하루를 연다. 나에게 딱 맞는 기분 좋은 온기를 전해주는 실내 온도에 “조금 더 눈을 붙여 볼까” 하는 나른한 고민도 잠시, 잠자리를 벗어나 창문을 연다. 이제는 제법 따사로운 햇살에 저녁부터는 집안 온도를 조금 낮춰도 되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본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도 아직 몽롱한 정신은 역시 샤워를 해야 깨어난다. 온수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온기가 하루에 대한 걱정마저 잠시 잊게 해준다. 바쁜 하루를 보낼 나를 위한 선물인 조금은 여유로운 아침, 어제와 같은 행복한 일상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제와 같다고만 생각했던 오늘 아침, 사실은 많은 것은 달라졌다. 마트에서 100개들이 커피믹스를 사면 덤으로 스무 개의 믹스를 더 주는 것처럼 당신의 주머니는 캐쉬백을 받아 두둑해졌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오늘 지구를 위한 한 그루 소나무를 심었다. 단 한 가지 작은 변화가 매번 같은 당신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당신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한 가지를 바꾸면서 말이다.

사실 이런 경험이 새롭지는 않다. 당신은 이미 에너지 효율 5등급이었던 냉장고를 더 비싸고 좋은 1등급 신제품으로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을, 비싸지만 연비가 우수한 차를 새로 사고 나니 눈에 띄게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일을 경험했다. 하지만 오늘의 변화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70%를 차지하는 난방 에너지를 16% 이상 절약하는 고효율의 에너지기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그런 기기는 비싸서 우리 집에는 쓸 수 없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당신에게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매일 쓰는 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TV,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 제품처럼, 보일러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4등급인 일반 보일러와 1등급인 콘덴싱보일러다. 같은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콘덴싱보일러는 사용하고 남은 배기가스 속 숨은 열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재활용하여 물을 데우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데다, 산성비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나 지구 온난화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효율적인 난방에너지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성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에너지 절감효과와 친환경성이라는 탁월한 효용성을 인정받으며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를 통해 사용이 일반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덴싱보일러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다. 우리나라의 콘덴싱보일러 역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보급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경동나비엔이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했지만 유럽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콘덴싱 기술이 없었던 경쟁사들의 견제도 거셌다. 이러한 아쉬움들이 모여, 당신의 작은 관심을 얻을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어마어마한 활동이나, 삶의 변화 없이도 우리 자신과 지구를 위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에 함께할 기회를 말이다.



얼마 전, 4수 끝에 마침내 아카데미상을 품에 안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미남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의외의 수상소감으로 전 세계인에게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기후 변화는 현실이며,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더욱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이 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스카 트로피를 받기 위해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의 스토리와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전 세계 정상들이 국가와 이념을 넘어 파리에서 함께 모았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법을 찾자."

이 말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여기고 있다면, 한 보일러 회사가 30년째 외치는 메시지에 잠깐만 귀 기울여보자. 답은 이미 당신의 옆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지만, 한 가지만 바꾼다면 당신은 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일상 속에 있지만 당신이 몰랐던 비밀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기만 하면 된다. 콘덴싱보일러라는 작은 변화는 당신의 일상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당신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테니까.





## 인테리어 팁

자연 친화 인테리어 소품

### 싱그러움이 가득, 공간에 어울리는 식물

꽃, 화분 등 공간에 잘 어울릴만한 식물을 배치하면 자연친화 인테리어가 가능하다. 집에 생기와 신선함, 봄의 싱그러움을 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인테리어 방법이다. 침실과 거실에는 보통 TV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를 배출하는 선인장, 산세베릴 같은 다육식물을 놓는 것이 좋다. 주방에는 라벤더, 허브, 스킨답서스를 놓으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음식냄새는 물론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또한,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는 수경식물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고급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을 한번에 원목 테이블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가진 원목 테이블은 오랜 시간 사용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러움과 멋스러움이 더해져 더 큰 매력을 풍긴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피톤치드라는 면역력 증강 물질이 나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특유의 따뜻한 느낌과 은은한 나무 향으로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원목 테이블은 티크부터 단풍나무, 소나무까지 다른 종류와 색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어두운 원목 테이블일수록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이 들고, 밝은 컬러의 원목일수록 포근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멋진 자연을 우리 집 안으로 풍경화

뻑뻑한 빔딩숲을 보는데 지쳤다면, 자연을 그대로 담은 그림 혹은 사진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자연 경관을 담은 그림 혹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집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과 함께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그린은 피로감을 줄여주는 컬러이자 웰빙 인테리어의 상징 컬러로 그린 컬러를 사용하면 쉽게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침실 위 혹은 거실 전면 등 벽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원하는 곳에 직접 고른 풍경화를 배치하면, 개성을 살릴 수도 있고 자연에 동화된 듯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북미 최대 냉난방 설비 박람회  
‘2016 AHR EXPO’ 참가



경동나비엔이 지난 1월 25일부터(현지 시각) 2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냉난방 설비 박람회 ‘2016 AHR EXPO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참가했다. 이 전시회는 냉난방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 동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냉난방 설비 박람회로, 올해는 세계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국내 보일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경동나비엔이 9년 연속으로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에 경동나비엔은 미국 현지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리미엄 순간식 콘덴싱 가스온수기 NPE와 콘덴싱보일러 NHB 등을 비롯해 IoT 기술이 적용된 콘덴싱보일러 NCB와 콘덴싱 전기발전보일러 나비엔 하이브리드SE에 이르기까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 ‘아쿠아 씬 모스크바’ 전시회서  
2년 연속 ‘올해의 최우수 기업’ 선정



경동나비엔이 지난 2월 2일부터(현지 시각) 나흘간 열린 러시아 최대 냉난방설비 전시회 ‘아쿠아 씬 모스크바 2016 (Aqua-Therm Moscow 2016)’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월 5일 폐막한 ‘아쿠아 씬 모스크바 2016’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역 내 바이어, 설비관련 전문가 등 약 3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영국의 박시(Boxi), 독일의 바일란트(Vaillant)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치고 수상한 ‘올해의 최우수 기업’은 전시를 주최한 ‘아쿠아 씬 협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최고의 제품을 전시한 업체에 수여한다. 경동나비엔은 이번 전시에서 최첨단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신제품들을 전시해 전시회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려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6년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사무소 및 평택 경동인재개발원에서는 경동나비엔, 경동원, 경동에버런, 경동티에스의 주주총회가 각각 열렸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와 함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3월 18일에 있었던 경동나비엔 주주총회에서 최재범 대표이사는 회사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주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사상 최대의 매출과 함께 25년 연속 업계 수출 1위를 기록한 지난해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No.1을 향해 세계 일류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리점 대표자 컨퍼런스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는 ‘2016년도 전국 대리점 대표자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전국의 경동나비엔 대리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컨퍼런스는 2015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대리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의 영업정책 소개와 함께 신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종호 영업본부장은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회사를 대표해 고객을 만나고 있는 대리점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2016년에도 본사와 대리점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일궈가자고 전했다.

중국법인, 전국 대리점장 회의와 순회 설명회 진행

지난 1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경동나비엔 중국법인이 주최한 전국 대리점장 회의가 있었다. ‘기술 나비엔’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 전역에 있는 대리점장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북경공방 방문, 2016년 영업정책 및 마케팅 정책 설명, 신공장 투자계획 소개 등이 이를 동안 진행되었다. 뒤이어 2월 말에는 일주일 동안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김용범 동사장과 왕주샤오 총경리 이하 주요 부문 팀장들이 중국 바오딩, 서안, 청도 지역 등을 방문하여 콘덴싱 기술 및 A/S, 마케팅, 영업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리점장들을 대상으로 중국시장의 미래가 콘덴싱 시장에 있음을 역설하며 본격적인 콘덴싱 제품 판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경동원 세라텍사업부  
고성능 흠드실리카계 진공단열재 'HYPER-VAC' 출시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고성능 흠드실리카계 진공단열재 HYPER-VAC



경동원 세라텍사업부가 고성능 흠드실리카계 진공단열재 'HYPER-VAC'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양산 및 시공에 돌입했다. 이번에 출시한 진공단열재 'HYPER-VAC'은 흠드실리카를 심재로 삼고 메탈라이즈 필름 외피재로 사용한 고성능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단열재(비드법 1종 1호, EPS) 대비 8배 이상의 단열 성능을 자랑한다. 아울러 심재는 불연재, 외피재는 준불연재로 화재가 발생해도 불에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다. 또한 신기술(NET)인증까지 받은 경동원만의 특수한 공법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현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부터 신규 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단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성능 단열재에 대한 대량 수요가 예측되는 만큼 경동원의 'HYPER-VAC'은 향후 단열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  
'2016 경향하우징페어'에서 사물인터넷 기술 선보여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건축 전문 전시회 '2016 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했다.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원격제어 솔루션을 선보여 경동원은 이번 전시회에서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경동원의 관련 기술이 집약된 '나비엔 IoT 홈 오토메이션(UHA-1020)'을 전시하여 시연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동원은 각 방 별 필요한 적정 열량을 공급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나비엔 시스템 각방'과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관계사 경동나비엔의 보일러 '나비엔 콘덴싱 스마트북' 등을 전시해 스마트홈에서의 난방기기 제어 기술에 대한 미래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경동나비엔 러시아 광고모델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 방문



최재범 대표에게 러시아 빙상연맹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안현수 선수

지난 3월 11일, 경동나비엔 여의도사무소에 쇼트트랙 스타 안현수 선수가 방문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을 러시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나비엔 광고 모델인데요. 이번에 러시아 쇼트트랙 빙상연맹 관계자와 함께 임원진 면담을 위해 여의도사무소에 왔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소속된 러시아 쇼트트랙 빙상연맹에서는 멋진 서포터인 경동나비엔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안현수 선수, 그리고 러시아 벽걸이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수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경동나비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의도 이수용 기자



연구소 신입사원 수습발표 현장

지난 3월, 경동나비엔, 에버런, 원, 티에스 각 본부에서는 신입사원 수습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습발표는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 거치는 중요한 관문인데요. 저는 서울연구소 신입사원들의 수습발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연구소에서는 총 3일에 걸쳐 분야별 수습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많은 시험과 자료 조사를 거쳐 발표를 준비해와서 심사관들을 놀라게 하는 사원도 있었는데요. 신입사원들이 앞으로 서울연구소 일원으로서 어떤 활약을 할지 미리 엿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하고 날카로운 질문도 받으며 수습발표를 무사히 마친 신입사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연구소 박문성 기자



독자와 NAVIENT 이 함께 만드는  
**READERSHIP**

인테리어 강연 초대권



www.kdnativen.co.kr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인테리어 강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프리미엄리빙매거진 **NAVIENT** 의 인증샷을 찍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보내 주세요.  
읽고 난 느낌, 다뤄봤으면 하는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우리집 경동나비엔 제품 인증샷을 찍어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마감 2016년 5월 20일 보내실 곳 sylee3@kdiwin.com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5층(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홍보팀 매거진 담당자 앞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www.kdnativen.co.kr

## 왜 세계적인 랜드마크는 경동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선택했을까?

세계적인 콘덴싱 기술력과 대수제어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최첨단 유지관리 시스템까지 갖춘 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  
이제, 미국 메리어트 호텔과 프린스턴 의과대학 등  
세계적인 건축물이 경동나비엔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경동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 :: <http://www.cascade.co.kr>

### 건축주가 찾는 시스템

- 에너지 절약 고효율 콘덴싱 기술 / 필요한 만큼만 운전하는 대수제어
- 유지관리 항상 방정관리자 불필요 / 일부 고장에도 운전 가능
- 쾌적성 항상 조용한 운전 / 순간급량 방식 / 원격케어 시스템

### 건설사/설계사가 찾는 시스템

- EPC점수 획득 에너지효율등급 / 비례 및 다단계어 운전
- 투자비 절감 저렴한 장비 단가 / 설치공간 최소화
- 시공성 향상 이설 및 증설 용이 / 일체화 모듈 / PCC연도 적용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